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29

장군상(將軍像)

가을걷이가 끝나가는 남당포 들판은 고즈넉했다. 까마귀 떼가 날아와 뽕쪽한 부리로 논바닥을 이리저리 헤치며 농사꾼이 흘린 낱알을 쪼았다. 그러다가 최씨와 하씨가 가까이 가자 까악까악 소리를 지르며 만덕산 쪽으로 날아갔다. 만덕산 쪽에서는 된하늬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은 곧장 논길을 타고 남당포로 내려갔다. 남당포에는 돛배들이 여남은 척 정박해 있었다. 갈매기 서너 마리가 돛배 사이로 너울너울 날아다녔다.

남당포에도 움막 같은 노포가 있었다. 남당포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술청어머니 술이나 음식을 파는 노포였다. 두 사람은 술청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가리포 가는 장삿배가 언제 있는게라우?”

“근디 으디서 온 사람덜이요?”

술청어머니 두 사람의 행색을 보더니 낯선 사람이라는 듯 되물었다. 이에 최씨가 말했다.

“충주에서 왔그만요.”

“뭇을 풀로 땡기는 사람인디 인자 왔소.”

“지덜은 장사허는 사람이 아니그만요.”

“가리포 가는 추자도 장삿배는 이른아침에 가부렀소.”

두 사람은 난감했다. 그렇다고 남당포에서 돛배를 빌려 타고 갈 만큼 여유도 없었다. 하루를 남당포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심란해졌다. 두 사람이 노포 밖에서 물러가지 않고 있자 술청어머미 말했다.

“여그서 미산포까지 걸어갔다가 거그서 가리포 갈 배를 찾아보씨요. 젓갈장사배가 있을 것인께.”

“미산포는 을매나 걸리는디요?”

“한 나절이든 되지라. 어차든지 저쪽 길을 타고 쭈욱 싸게 가보씨요.”

술청어머미 남당포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려 주었다.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술청어머미 알려준 대로 남당포를 떠났다. 길은 탐진바다 옆으로 나 있었다. 논밭을 지날 때는 탐진바다가 옆에 있었고, 산자락 언덕을 넘을 때는 탐진바다가 보이지 않았다.

탐진바다는 가을햇살을 받아 사금파리처럼 반짝였다. 미산포가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앞서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켜걸음으로 따라가 그들 뒤에 붙었다. 앞서 가던 한 사람이 최씨를 보고 말했다.



“당전마실 가는 것이요?”

“미산포에 배 타러 가는그만요.”

“우리덜은 당전마실에 당제 지내러 가요.”

“당제요?”

“우리덜은 칠량에서 가마 일 허는 도공덜인디 가실가마 전에 대구소 당전마실에서 당제를 지내지라.”

“우리덜은 거그 같 생각이 읍그만요.”

“당제 지내고 나쁜 음식을 푸짐하게 묵을 수 있음께 알아서덜 허씨요.”

산자락 언덕을 넘어서자 갈림길이 나타났다. 칠량 도공은 대구소 쪽으로 올라갔고,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과연 미산포에는 여러 척의 돛배들 사이에 장삿배가 한 척 닻을 내리고 있었다. 최씨가 먼저 장삿배로 올라갔다. 때마침 선실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가 말했다.

“누구요?”

“가리포 갈라고 헌디 요 배를 타든 될까라우?”

“가기는 헌디 널 아척에 뜨요.”

잔주름이 자글자글 패인 그는 이가 많이 빠져 볼이 홀쭉했다. 두 사람은 내일 배가 뜬다는 말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안도했다.

“지덜 두 사람 가리포까지 부탁허졌습니다요.”

“태워주기는 허겼소만 요 배는 젓갈장사배라 냄시가 코를 찌를 건디 참을 수 있겼소?”

“참어야지라. 잠을 재워주시는디 냄시쫄이야 참어야지라.”

“선실은 선원덜이 자야 헌께 젓갈창고 빈 바닥에서 자씨요.”

“혹시 선장님이신게라우?”

두 사람에게 잠자리를 배려할 정도라면 선원이 아닌 선장이 아닐까 싶어 최씨가 물었다.

“그렇소.”

“선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모다 젓갈 풀러 나갔소. 마침 당제가 있다고 헌께 오늘은 빨리 나갔그만이라.”

두 사람은 선장을 따라서 갑판에서 선실창고로 내려갔다. 창고는 어두컴컴했다. 갑판에서 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어 젓갈항아리들이 어렴풋이 드러나 보였다. 두 사람은 창고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감싸 쥐었다. 창고에는 완숙한 젓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숙성하면서 역한 냄새를 풍기는 젓갈도 있었다. 선장이 창고에 있는 젓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추자도에서 온 멸젓이 남당포에서 인기가 좋지라.”

선장은 멸치젓갈을 줄여서 멸젓이라고 했다.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젓갈은 청어, 전어, 밴댕이, 조기 새끼를 염장한 잡젓이었다. 여러 항아리에는 다른 종류의 젓갈들이 들어 있었다. 토하젓갈, 새우젓갈, 홍합젓갈, 전복젓갈, 게젓갈, 갈치내장젓갈 등등 대부분 탐진에서 나는 젓갈들이었다.

선장이 젓갈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겨우 적응했다. 처음과 달리 코를 쥐지 않아도 되었다. 눈도 선실창고 안의 어둠에 익숙해져 잠자리를 살필 수 있었다. 젓갈항아리들 한쪽으로 비좁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잠잘 공간은 비어 있었다. 선장이 말했다.

“선원덜이 언제 올지 모르게 여그 있지 말고 당전마실에나 갔다 오세요.”

“아이고메, 그랄게라우.”

“당제를 지내고 나쁜 묵을 음식이 많을 것어요. 궁께 얼릉 가보세요.”

“선원덜은 젓갈을 쪼깐씩 갖고 땡김시로 쌀이나 꾀감으로 바파오기도 허요.”

젓갈과 쌀이나 씨감자, 꾀감, 대추, 배 등과 물물교환을 한다는 말이었다.

“이문이 크지는 않지만 농사짓는 것보담 괴안찮지라.”

“궁께 젓갈장삿배를 갖고 땡기시켰지라우,”

하씨가 젓갈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있지 못하겠다는 듯 선장의 말을 얼른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하씨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처음과 달리 역한 젓갈냄새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입맛을 돋우는 젓갈냄새도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갑판 밑의 선실창고를 나와 심호흡을 했다. 탐진바다의 신선하고 비릿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두 사람은 선장의 말대로 당전마을로 향했다. 미산포마을 고샅길을 지나면 대구소가 나왔고, 그 앞터가 당전마을이었다. 과연 도공들이 모여 팽나무처럼 생긴 푸조나무 아래서 당제를 지내고 있었다. 스무 명쯤의

도공들이 새끼줄을 두른 푸조나무 앞에 모두 엎드린 채 제주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푸조나무 등치 앞의 큰 상에는 쌀밥과 미역국, 돼지머리와 어포, 조기, 산채나물, 대추, 밤, 배, 감 등의 과일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충주에서 보았던 당제와 엇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신위(神位) 자리에 도자기로 빚은 장군상(將軍像)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황갈색 청자로 빚은 장군상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황갈색 청자라면 오래 된 장군상이 틀림없었다. 최씨는 참지 못하고 당제를 지내고 있는 한 도공에게 물었다.

“저그 장군상은 누구요?”

“몰라서 묻는게라우? 여그 사람은 아닌갑소잉.”

“맞소.”

“우리 조상님에게 청자를 전해준 장보고 대사님이시지라우.”

최씨는 깜짝 놀랐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장보고 대사를 신위 자리에 놓고 당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씨가 또 도공에게 물었다.

“장보고 대사님이 저러코름 생겼을게라?”

“난 모르겄소. 장보고 대사님을 본 사람이 저러코름 멍들었겄지라우.”

“누구헌테 물어보믄 알겄소?”

“아무래도 당제를 주관하시는 제주님이 잘 알겄지라우.”

“고맙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제 중간부터 끼어들었다. 두 사람은 도공들과 함께 장군상을 향해 엎드려 두 번 절을 했다. 제주가 피운 향이 두 사람의 코끝에도 스쳤다. 그러는 동안 제주의 술잔이 장군상 앞에 놓여졌다. 이윽고 제주가 축문을 읽었다. 최씨는 장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축문 앞부분은 거의 듣지 못했다. 축문이 끝나갈 무렵에야 귀를 기울였다.

청작서수 (淸酌庶羞)

공신전헌(恭伸奠獻)

상향(尙饗)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니 흠향 하십시오, 라는 뜻이었다. 축문이 끝나자 제주가 아닌 다른 두 도공이 아현과 종현의 술잔을 연거푸 장군상 앞에 올렸다. 그때마다 참석한 도공들 모두가 두 번 절하며 당제는 마무리되었다. 음식이 단에서 내려와 도공들에게 나누어졌다. 큰 술단지에는 따로 도공 두 사람이 들고 왔다. 늙은 도공 한 사람이 하씨를 붙잡아 끌었다.

“여그 앉아 음석을 묵어. 음복허믄 복을 반응께.”

“고맙습니다요.”

늙은 도공의 손은 거칠었다. 흙을 만지는 사람들은 손마디가 굵어질 수밖에 없었다. 도공의 손아귀 힘은 보통사람 이상이었다. 하씨는 하마터면 늙은 도공이 잡아끄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던 것이다. 늙은 도공이 또 말했다.

“음복허믄 장보고 대사님이 도와주신당께.”

늙은 도공은 단에 차려졌던 음식을 맛보아야만 장보고 대사의 음덕을 받는다고 믿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여. 여그 도공덜 다 그로코름 생각헌께 모인 것이여.”

최씨가 늙은 도공에게 말했다.

“사실 지덜은 장보고 대사님 제사를 지낼라고 가리포로 가고 있그만요.”

“뿔이여!”

“지 조상님께서서 장보고 대사님 덕으로 살았다고 허시드그만요. 공께 반다시 제사를 지내드려야 험다고 예렸을 때부텨 듣고 자랐그만요.”

“자네도 도공이여?”

“아닙니다요. 조상님은 청해진에서 장보고 대사님 정년 장군님 부하로 살았는디 지덜은 충주에서 살았그만요.”

“공께 조상이 살든 고향으로 찾아가는 길이그만.”

“그러그만요.”

“아이고메, 내 일 같그만. 나도 장보고 대사님 덕으로 살아가고 있응께 말이여.”

“인사가 늦었그만요. 지는 최가고, 여그 동상은 하가그만요.”

“으디 최가여?”

“탐진 최가그만요.”

“참말로 인연이 묘허그만. 나도 탐진 최가네.”

그제야 최씨는 자신의 선조가 장보고와 정년의 부하로 청해진에서 살다가 벽골군으로 강제이주 당했고, 또 벽골군에서 충주 유씨에게 노비로 팔려가서 대대로 사병이 됐는데, 왕이 선포한 노비안검법으로 해방되어 가리포로 가는 길이라고 고백했다. 늙은 도공이 최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다.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고상을 했을꼬. 그래도 우리털은 여그 탐진에서 맘 편하게 묵고 살았는디.”

“촌수는 모르겠는디 아재라고 불러볼 겠습니다요.”

“그러믄 자네가 조카가 되겠네잉.”

“예, 담에 한 번 더 찾아뵈러 오겠습니다요.”

“시방 가리포로 갈라고?”

“아니그만요. 배는 널 아척에 뜬다고 험니다요.”

“그러믄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 뒤척대는 배에서 어처케 잔당가.”

하씨가 망설이는 최씨에게 눈짓을 했다. 젓갈 냄새나는 선실 창고에서 잠자기가 끔찍하다는 눈짓이었다. 최씨도 늙은 도공의 호의가 고마웠다. 꼭두새벽에 미산포로 나가 배를 탄다면 가리포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터였다.

“아재가 고로코름 말씀해 주시니 참말로 고맙그만요.”

음복을 한 도공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아직 장군상은 단 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늙은 도공이 일어나더니 장군상을 보자기에 췌다. 하씨가 보자기에 췌 장군상을 받아 들었다.

“지가 들고 가겠습니다요.”

“잘 모셔야 허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장군상이네.”

“그라믄 아재는 대대로 도자기를 맨들어온 모양입니다요.”

“아니여, 백년 전 조상님은 도공이었다고 허는디 증조하나부지, 하나부지께서는 농사짓고 살으셨어. 그러다가 돌아가신 선친 때부텀 가마를 짓고 진흙을 만졌제.”

늙은 도공의 얘기대로라면 1백여 년 전 자신의 선조는 도공이었다는 말이였다. 그러니까 늙은 도공은 아버지 가업을 잇고 있는 셈이였다.

“농사짓는 것보담 훨씩 낫제. 청자덜이 가마에서 잘만 나오믄 말이여.”

“지덜도 배울 수 있을게라우?”

“눈대중만 있으믄 되는디 뿔보담 끈기가 있어야제. 아무리 재주가 있드라도 끈기가 없으믄 도공 일은 못해.”

“지덜은 사병 출신이라서 활이나 칼은 쪼깐 쓸 줄 알지라우.”

“생각이 있으믄 가리포에 갔다가 은제든지 와서 해봐.”

“아재,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가리포에 가드라도 당장은 목고 살기 심들겠제. 궁께 헌 말이여.”

늙은 도공 최씨의 집은 밤나무 숲이 우거진 계곡 가에 있었다. 계곡 양쪽으로 밤나무들이 유난히 많았다. 가마 장작으로 쓰일 소나무들은 밤나무 숲 위쪽의 가파른 비탈과 산 정상 부근에 울울했다.

“당전마실로 오믄 뿔을 허든지 목고는 살 수 있을 것이여. 가마덜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을께. 시상이 바뀐 요즘은 무위사 같은 절에서 청자기물덜을 많이 부탁해온께 읊어서 풀지 못헌당께.”

쌍계사 아래쪽 천개산 골짜기에 있던 가마들이 지금은 당전마을 안팎으로 모여든 것은 사실이었다. 가마 장작용으로 사용하는 천개산 산자락의 소나무들이 점점 사라지고, 도기들을 대구소나 미산포까지 옮기려면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한번 베어진 소나무가 장작용이 되려면 적어도 1백년은 지나야 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쌍계사 아래 천개산 골짜기에도 사라졌던 소나무들이 무성해지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가마들이 쌍계사에서 미산포까지 1백여 년 터울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소나무 영향이 가장 컸다.

늙은 도공 최씨는 초가를 세 채 가지고 있었다. 한 채는 본채이고 또 한 채는 도공들이 사용하는 별채, 또 한 채는 창고였다. 그리고 본채 옆의 세 평짜리 작은 움막은 사당이였다. 늙은 도공 최씨의 아내는 젊었다. 아마도 상처한 뒤 맞이한 두 번째 아내인 것 같았다. 도공 최씨가 두 사람을 아내에게 소개했다.

“당제를 지냄서 일가를 만났네. 이쪽은 최가고 저쪽은 하가라고 허네.”

“탐진에서 아재를 만나다니 지는 운이 좋은 사람이그만요.”

“호호호.”

도공의 아내가 부끄러운 듯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어느 새 노비도 달려 나와 두 손을 모으고 섰다. 그러자 도공 최씨가 말했다.

“하룻밤 묵고 간당께 별채 방을 쪼깐 치우소. 군불은 자근노미에게

시키고.”

도공의 집안에서 잡일을 하는 노비의 이름은 자근노미였다. 도공 최씨는 본채로 들어가기 전에 사당부터 들렀다. 하씨가 보자기를 풀자 도공 최씨는 장군상을 사당 안으로 옮겼다. 단에 올려놓기 전에 말했다.

“여그를 쪼깐 보소. 아무라도 보여주지는 않네. 자네가 탐진 최가라서 보여주는 것이네.”

“뫼을 보라는 말썸인게라우?”

“장군상 뫼을 보란 마시. 최(崔)자가 씨 있을 것이네.”

“예, 보이그만요.”

“아마도 장군상을 뫼근 조상님이 아니실까 짚네. 어차든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다는 장군상인게 말이여, 우리 조상님이 도공이셨다는 것을 증명허는 것이여.”

“누구신지 아신게라우?”

“최가가 한두 멩인가. 다만, 믿거나 말거나 허는 애긴디 녹(綠)자 천(天)자 하나부지라는 말도 있어. 근디 최가가 하나 둘이어야제. 궁께 단정할 수 읍다는 말이여. 한번은 집안 친척끼리 썸이 났어. ‘기다, 아니다’고 험서 대판 언쟁이 났단 말이여. 담부터는 누가 장군상을 멩글었는지는 말허지 않기로 했어. 글고 최씨 본향이 한둘인가. 해주 최씨도 있고 말이여.”

“누가 멩글었든지 장군상은 분명해. 당시 탐진 땅의 장군은 장보고 대사님이나 정년 장군밖에 누가 더 있겠어.”

도공 최씨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최녹천 도공선조가 장보고 대사를

흠모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듯했다. 장보고가 당나라 월주에 노비도공으로 있던 최녹천을 탐진으로 보내 주었기 때문에 장군상을 만들어놓고 흠모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했던 것이다. 최씨가 말했다.

“아재, 부탁이 하나 있는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못할 것이 뭣이 있겠는가.”

“지에게 장군상을 두 개 맹글어주실 수 있겠는게라우? 가리포에서 아재멩키로 움막사당을 짓고 장보고 대사님을 모시고 짚그만이라우.”

“근디 두 개는 뭘가?”

“또 하나는 정년 장군님이시지라우.”

“아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내 한 번 맹들어봄세. 올 가실 가마가 있응께 시안에나 우리 집을 다시 와 찾아가소.”

“아이고메, 그라믄 지 선친허고 약속헌 대로 내년 정월 보름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겠그만요.”



도공 최씨는 장군상 앞에서 큰절을 했다. 아저씨가 된 도공 최씨가 사당을 나오자 조카 최씨와 하씨도 사당 안으로 들어가 장군상 앞에 었드렸다. 사당이 너무 좁아 두 사람이 일어나면서 부딪치기도 했다.

투구만 없다면 영락없는 부처상이었다. 약간 고개를 숙인 모습은 열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굽어보는 듯했다.<계속>